

중국의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 :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

이 강 원*

The Identification of Nationa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Reg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Spatial Strategy and Its Effects

Kang-Won Lee*

요약 : 이 논문은 중국 민족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에 내재된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중국의 민족식별과 자치구역의 설정은, 전통적인 정체성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민족을 지역화시킴으로써, 소수민족들을 중국 내의 확고한 인민으로 전환시키는 국가통합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식별에 있어서 기존의 자의성, 국가에 의한 인구의 재배치 그리고 민족자치구역의 설정 및 영역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중국민족' 혹은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렇게 식별된 민족과 구획된 영역을 따라서 새로운 개별 민족적 정체성을 창출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주요어 : 중국의 민족식별, 중국의 민족자치구역, 중국의 민족정책, 정체성의 정치, 민족의 지역화

Abstract :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PRC's policies related to its minority nationaliti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identification of minority nationalities(*minzuzhibie*) and the establishment of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regions(*minzuzizhiqiyu*), as a part of national integration process. In that process, the intentional application of the criteria on nationality ident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regions, the population redistribution policies and the gerrymandering by the govern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construction of traditional basis of identities and the territorialization of ethnicity. The goals of government have been the redefinition of 'Chinese', the the invention of 'Chinese nationality(*zhongguominzu* or *zhonghuaminzu*)' and the unification of its national territory. However, these have led to the unexpected result by creating the new ethnic-territorial identities along with the nationalities identified and the territories defined by the government.

Key Words : China's identification of nationalities, China's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Regions, China's policies on minority nationalities, politics of identities, regionalization of ethnicity.

1. 서론

중국은 1개의 주체민족과 55개의 소수민족집단으로 민족이 구분되며, 소수민족의 인구비율은 현재 중국 전체인구의 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소수민족이 주체민족이 되는 민족자치지방은 대부분 중국의 변강(邊疆)에 위치

하면서 일종의 지정학적 긴장의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면적 또한 중국 전체면적의 73.5%라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비율을 들어 중국의 민족에 관련된 문제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민족지구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조사가 불가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능한 상황에서, 외부의 연구자들은 주로 중국의 민족정책(Deal, 1971; Dreyer, 1976; Heberer, 1989; Mackerras, 1994)이나 지정학적 분열의 가능성(Segal, 1994)에 주목하여왔다. 반면에 중국 내부의 연구자들은 1956년에 시작되었다가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된 소수민족 사회역사조사(少數民族社會歷史調查)와 같이 정부에 의해 조직된 연구활동을 통하여 탈정치적이고 고정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문화 개념에 입각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로 「민족문제 5종 총서(民族問題五種叢書)」를 들 수 있다(金光億, 1998, 356; 李康源, 2000, 11-12).

이러한 두 가지 연구 경향은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민족정책과 지정학적 분열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분열행동의 주체가 되는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민족이라는 사회적 범주와 민족자치구역이라는 공간적 단위를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내부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소수민족과 민족지구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을 민족학적인 범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들(Gladney, 1991; 1996; Mackerras, 1995)이 있지만, '민족정책(국가)과 사회적 범주로서 소수민족의 대응(자기 정체성)'이라는 도식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 민족정책의 특징이자 중국 민족정책에 대한 평가의 논쟁점인 민족구역자치(民族區域自治) 제도라는 공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민족과 민족자치구역¹⁾이 어떤 고유한 자연적 근거에 의해 존재하거나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공간적 전략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민족의 식별과 민족자치구역의 설정 및 공간적 조정에 주목한다.

2. 민족식별 공작과 식별의 기준 문제

1) 민족식별과 분류의 전통

중국에서 '인민(人民)'²⁾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

람들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사서에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에버하르트(Eberhard, 1982, 412-419)는 거의 3,000년에 이르는 중국 역사에서 약 8,000개의 구별되는 '야만(barbarian)' 집단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집단들은 그들 거주지의 방향에 따라 범주화되었으며, 대표적인 표현이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이다. 나아가, "사견부(使犬部)→사록부(使鹿部)→사마부(使馬部)"와 같은 고아시아계나 퉁구스계통의 민족에 대한 분류, "생여진(生女眞: 비농경여진)→숙여진(熟女眞: 농경여진)"과 같은 여진족에 대한 분류 등에서 보이듯이, 중원의 시각에서 사회발전단계를 규정한 전통적인 범주 역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와 통제는, 그 외양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현재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민은 민족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민족성분(民族成分)을 파악하지 못한 70여 만의 인민들마저도 '민족미식별(民族未識別)'이라는 항목을 기록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아직도 셀파, 핑우장인, 덩, 라지, 크무, 망인, 후, 쿠충 등 몇몇 식별 후보 집단들이 존재한다(黃光學, 1995: 표 2 참조).

이러한 분류 이외에도 스탈린적 견지에서 해석된 맑스주의의 사회발전단계론이 각각의 민족의 상태에 대한 규정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문춘족을 원시공동체 말기의 지연공동체의 단계로, 티벳(짱족)을 봉건제와 노예제의 혼합단계로 규정된 것 등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발전단계에서 한족은 사회주의라는 가장 높은 단계에 가장 먼저 이른 민족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헤베러(Heberer, 1997, 145)는 후진민족의 가장이자 교육자로서의 한족이라는 것은 중국의 한족과 소수민족의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의 특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중국의 가부장적 친족 신화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가부장적 친족의 신화는 유교적 질서 관념의 연장 속에서 사회구성체론에 따라 5 단계의 사회발전단계로 공식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류와 단계의 규정이 비록 '사회과학'이라는 과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전통과의 단절보다는 연속의 성격 역시 강하게 지

표 1. 중국 민족 인구와 주요 분포지역

민족명	인구(1990)	주요분포지역	민족명	인구(1990)	주요분포지역
漢族 Han	1,039,187,548	전국	柯爾克孜族 Kirkiz	143,537	新疆
蒙古族 Mongolian	4,802,407	內蒙, 新疆, 吉林, 黑龍江, 甘肅, 青海 等	土族 Tu	192,568	青海
回族 Hui	8,612,001	寧夏, 甘肅, 河南, 河北, 青海, 新疆 等	達斡爾族 Daur	121,463	內蒙, 黑龍江, 新疆
藏族 Tibetan	4,593,072	西藏, 青海, 四川, 甘肅, 雲南	仫佬族 Mulao	160,648	廣西
維吾爾族 Uygur	7,207,024	新疆	羌族 Qiang	198,303	四川
苗族 Miao	7,383,622	貴州, 湖南, 雲南, 廣西, 四川, 廣東	布朗族 Blang	82,398	雲南
彝族 Yi	6,578,524	雲南, 四川, 貴州	撒拉族 Salar	87,546	青海, 甘肅
壯族 Zhuang	15,555,820	廣西, 雲南, 廣東	毛南族 Maonan	72,370	廣西
布依族 Bouyei	2,548,294	貴州	仡佬族 Gelao	438,192	貴州
朝鮮族 Korean	1,923,361	吉林, 黑龍江, 遼寧	錫伯族 Xibe	172,932	新疆, 遼寧
滿族 Manchu	9,846,776	遼寧, 黑龍江, 吉林, 河北, 北京, 內蒙	阿昌族 Achang	27,718	雲南
侗族 Dong	2,508,624	貴州, 湖南, 廣西	普米族 Pumi	29,721	雲南
瑤族 Yao	2,137,033	廣西, 湖南, 雲南, 廣東, 貴州	塔吉克族 Tajik	33,223	新疆
白族 Bai	1,598,052	雲南	怒族 Nu	27,190	雲南
土家族 Tujia	5,725,049	湖南, 湖北	烏孜別克族 Uzbek	14,763	新疆
哈尼族 Hani	1,254,800	雲南	俄羅斯族 Russian	13,500	新疆
哈薩克族 Kazak	1,110,758	新疆, 甘肅, 青海	鄂溫克族 Ewenki	26,379	內蒙, 黑龍江
傣族 Dai	1,025,402	雲南	德昂族 Deang	15,461	雲南
黎族 Li	1,112,498	廣東, 海南	保安族 Baoan	11,683	甘肅
傈僳族 Lisu	574,589	雲南	裕固族 Yugur	12,293	甘肅
佤族 Va(Wa)	351,980	雲南	京族 Jing	18,749	廣西
畬族 She	634,700	福建, 浙江, 江西, 廣東	塔塔爾族 Tatar	5,064	新疆
高山族 Gaoshan	2,877	臺灣	獨龍族 Dulong	5,825	雲南
拉祜族 Lahu	411,545	雲南	鄂倫春族 Oroqen	7,004	黑龍江, 內蒙
水族 Shui	347,116	貴州	赫哲族 Hezhe	4,254	黑龍江
東鄉族 Dongxiang	373,669	甘肅	門巴族 Monba	7,498	西藏
納西族 Naxi	277,750	雲南	珞巴族 Lhoba	2,322	西藏
景頗族 Jingpo	119,276	雲南	基諾族 Jino	18,022	雲南

주: 其他 未識別民族 752,347, 中國國籍加入外國人 3,498. 여기서 민족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중국어 발음이 아닌 국제관례를 따랐음. 2001년말 실시된 인구센서스의 각 소수민족들에 대한 통계는 2002년 3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음. 자료: 中國民族統計年鑑: 1998.

표 2. 중국 정부가 민족으로의 식별을 고려 중인 민족미식별 인구집단

인구집단의 명칭	추정인구수	언어의 계통	주요거주지역
셀파 Sherpas	400	Nepalese	티벳
핑우장인 Pingwu-Tibetans	3,000+	Tibetan	티벳, 쓰촨, 간수
덩 Deng	20,000	Tibetan	티벳, 윈난
라지 Laj	1,500	?	윈난, 마관지구
크무 Khmu	2,100	Mon-Khmer	윈난
망인 Mangren	500	?	윈난
후 Hu	2,000	Kam-Tai	윈난
쿠충 Kucong	25,000	Tibeto-Burman	윈난
유태인 Jew	2,000?	Sino-Tibetan	전국적 산재

자료: 黃光學(1995), Gladney(1996)

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민족식별 공작의 전개

이른바 과학의 형식을 띠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국의 민족정책은 1930년대에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원칙상 소련에서 발전시킨 정책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특히 1934년~1935년의 대장정(大長征) 시기에 이러한 민족정책은 더욱 심화 발전되었는데, 이는 장정 과정에서 지도부가 소수민족 지구에 대해 광범위한 관찰을 하고 비한족의 정치적 지지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Kim, 1983).

민족문제에 대한 공산당 지도부의 초기적 태도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지만, 초기에 사용되었던 동화(同化: assimilation)라는 용어를 융화(融化: amalgamation)로 대체한다거나, 민족집단의 명칭에 붙어서 분류 범주의 기능을 하였던 '부락(部落: 부족: tribe)' 나 '번(番: aborigines)' 그리고 '생(生)', '숙(熟)', '견(犬)' '충(蟲)' 과 같은 전통적인 용어의 폐기에서 보듯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초부터 광범한 민족식별공작(民族識別工作)이 진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공식적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식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별의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신중국이 1949년 10월 1일 성립한 후, 1953년 제1차 인구센서스가 진행되고, 195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계 제1차 회의가 북경에서 열리는데, 이 사이에 중국 정부는 인민대표대회석상의 보고를 위하여 전국의 민족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에 착수한다. 1952년 중국 정부가 임시적으로 조사한 결과, 소수민족은 6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들 중에는 후에 55개로 확정된 민족 속에 없는 인구집단이 있고, 이 60개에 속하지 않는 민족이 후에 55개의 민족 속에 추가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1953년 6월 국가통계국이 실시한 소수민족의 분포와 언어, 종교신앙에 관한 조사에서는 50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한다고 발표되었다(姜命相, 1988, 83).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민족식별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조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때 발표된 민족 중 1953년의 인구 센서스에 등재되지 않는 민족들이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 중국 정부는 “정부의 민족정책을 선전·관철하고, 민족관계를 제고시키며,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국토의 통일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黃光學, 1995, 147), 민족에 대해 해당 민족의 자칭(自稱)을 중요시하는 ‘명종주인(名從主人)’의 원칙을 세운다.³⁾ 민족명칭을 확정하는 일은 그들 민족 자신들의 일이지,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행정적인 명령에 의해 처리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1953년 전국 인구 센서스 초기에 스스로 민족이라고 자칭하는 명칭들을 등재하게 한 결과 400여 개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전국 각지에 400여 개의 집단이 자신들은 남과 다르며, 구별되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등록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자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정리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중국 정부는 1950년~1952년 사이에 당 지도부와 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을 포괄하는 소수민족방문단(少數民族訪問團)을 구성하고, 서남, 서북, 중남, 동북 및 내몽고에 파견하여 당의 민족정책을 선전하고, 민족식별문제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만 하여도 1953년의 인구센서스 예비작업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다. 이로부터 중국 정부는 민족식별의 문제를 민족공작(民族工作)의 중요한 사안으로 상정하게 된다. 사실상 이 시기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민족은 한족 이외에 몽고족(蒙古族), 후이족(回族), 좡족(藏族), 위구르족(維吾爾族), 먀오족(苗族), 야오족(瑤族), 이족(彝族), 조선족(朝鮮族), 만족(滿族) 등 9개 민족 뿐이었다(黃光學 主編, 1995, 148).

이들 중 만족(=만주족)은 식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들이 언어, 지역, 경제, 심리 등 스탈린의 민족식별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한족에 동화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2년 12월 7일 중공중앙 통전부(統戰部)가 [만족은 소수민족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關於滿族是否是少數民族的意見)]이라는 문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 문건은 “만족은 우리나라 경내의 한 소수민족”이라고 결론지었다(當代中國的民族工作編輯部, 1993, 571).

이렇듯 민족식별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

다. 이후 중앙민족사무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민족식별 소조(民族識別小組)를 파견하여 민족의 계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8개 민족이 식별되고, 1953년의 정식 전국 인구 센서스에 공식적 항목으로 등재된다.

이러한 민족식별 공작이 1950년대 초에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1965년 15개의 소수민족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며,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되었던 민족식별 공작이 재개된 이후 1981년 7월 꾸이저우성(貴州省) 꾸이양(貴陽)에서 민족식별 공작 좌담회(民族識別工作座談會)가 열렸을 때, 당시 꾸이저우성에서만 스스로 다른 민족으로 식별을 요청한 집단이 80여 개, 약 90만 명에 이르고 있었던 것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사업이었다. 1982년에 2개가 추가적으로 인정되어 현재의 55개 소수민족이 확정되었다.

3) 민족식별의 스탈린적 기준과 그 변형

이러한 민족식별에는 어떠한 통일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그간 사회주의권에서 채택된 민족식별 기준은 대부분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정의에 입각하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 역시 자신들의 분류가 스탈린의 민족에 대한 정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費孝通, 1995). 스탈린은 객관적인 문화적 속성에 의거하여 민족을 정의하고자 하면서, “민족은 공동의 언어, 공동의 영역, 공동의 경제생활, 공동의 문화 속에서 나타난 공동의 심리구조를 갖춘,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한 안정적인 공동체이며, 위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민족으로 존재할 수 없다”(Stalin, 1942)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중국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중국 정부 역시 스탈린의 정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1950년대에 이러한 식별작업에 참여하였던 인류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 1995)이 공동의 언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로서 징포족(景頗族)을, 공동의 영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로서 마오족(苗族)을, 공동의 경제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로서 쑹족(壯族)을 들었는데, 민족식별과 분류에 있어서 자의적인 측면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민족식별의 임의적 성격에 대해, 글래드니(Gladney)는 그의 후이족(回族)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에서 민족집단의 식별에 대한 결정들은 문화적 기준들에 입각한 것만큼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스탈린의 기준에 입각한 것이건 문화적 속성에 입각한 것이건, 민족의 확정에 관한 문화적 이론은 구별되는 민족집단으로서 후이족에 대한 설명으로는 분명히 부적절하며,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후이족과 같은 어떤 집단들은 인정하고, 다른 집단들은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다”(Gladney, 1991, 71)고 지적하였다.⁴⁾ 여기서 “각각 다른 논리”는 국면과 상황에 따른 정치적인 논리를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민족은 정치적 국면과 상황에 따라 수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족이 ‘만들어지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 범위는 존재한다. 일단 분류된 범주에 대해 피분류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혈통’이라는 지표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스탈린의 4대 지표도 혈통이라는 기준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민족식별이 전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스탈린의 4대 지표에 비추어 한족과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취하고 있어도 역사문헌이나 족보상에서 수백 년 전의 조상이 한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한족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최근에 발견된 900여 년 전의 족보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무슬림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에 의해 한족에서 후이족으로 재식별된 쉐저우(泉州)의 후이족과 같은 경우가 있다(Gladney, 1995). 따라서 중국에서 민족에 대한 정의는 스탈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기보다는 혈통관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 창조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과 그 이후 진행된 민족식별과정에서 유일하게 원칙의 변형이 없이 관철된 것은 혈통뿐이었다. 이것은 현재 개인에 대한 민족식별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혈통에 의한 식별이 개인에게 적

용되면서 문제는 간단치 않게 되었다. 통혼의 증가로 인하여 개인의 민족성분(民族成分)이 다양해지면서, 개인의 민족식별에서도 자신의 '전략에 따른 민족의 선택(strategical selection of nationality)'(李康源, 2000)이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격변과 그에 뒤이은 개혁개방이라는 조건 속에서 민족이라는 '꼬리표'가 지니는 전략적 효과와 관련이 있다. 예로 만족(滿族: 만주족)은 1953년의 인구조사에서 2,399,228명으로, 1964년에는 2,695,675명으로 조사되었지만, 1982년에는 4,304,981명, 1990년에는 9,846,776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증가의 결과가 아니며, 신중국 초기의 정치적 상황에서 '만족'이라는 꼬리표가 유리하지 않았던 반면에,⁵⁾ 198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민족우대정책에 따라 만족으로 등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들이 한족에서 만족으로 민족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그 근거는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민족 성분, 곧 혈통이었다. 예를 들어, 고조부가 한족이고 고조모가 만족이어서 증조부가 한족이고, 증조모도 한족이어서 조부가 한족이며, 조모가 한족이어서 아버지가 한족이고, 어머니 역시 한족이어서 본래 한족으로 등재되었던 사람이 민족 변경을 청원하여 만족으로 재식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만족 이외에도 투자족(土家族), 후이족 등 여러 민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민족식별의 기저 논리로서 영토문제

우리는 여기서 중국 정부가 이러한 분류를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모든 개인은 어떤 민족에 소속되어야만 한다. 다수민족도 아닌 문자 그대로 소수인 인간집단들에 대해 정확히 분류해야 하고, 다시 그에 대해 우대정책을 써야만 한다는 논리에는 무엇인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논리의 근거에 영토라고 하는 공간적인 사항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간적 통합을 위한 구별로서 민족식별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중국 성립 시기까지 확정되어 있던 민족은 9개였다. 건국 초기 이들을 흡수

통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들 9개 민족들은 각각의 내부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하나로 묶고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民族主義)였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청나라의 영토를 계승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중국공산당이 건립한 정부도 결국은 전통적인 중원에 의한 지배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분리주의적인 움직임이 거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민족집단들 내부의 일부 세력들이 이전에 중국공산당에 대해 협조한 것도 열강의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하거나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할 자유를 공산당이 보장한다는 약속에 기반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에 이르러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입장을 수정하자, 이들 민족들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하였다. 이러한 저항은 신생국가 중국이 극복하기에는 힘겨운 지정학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 9개 민족들이 모두 국경을 가로질러 존재한다는 의미의 '과계민족(跨界民族)'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 당시까지도 식별되지 못한 민족들 역시 자신들 나름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나아가 1951년까지 중국 경내에서 국민당 및 여타의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지도 않았다. 타이완의 장제스(蔣介石) 정부는 대륙의 소수민족들과 공산당에 의해 탄압 받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선무방송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에 더하여,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신생국가인 중국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⁶⁾

중국 정부로서는 어디에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였다. 그것은 당초의 1930년대의 약속에 입각한 연방제(聯邦制)⁷⁾의 실시였고,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족식별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을 식별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고, 이는 자신들의 관할에 들어 온 작은 인구규모의 민족집단을 연방제에서 분리독립하려는 집단들과의 표 대결에 참여시킬 수 있는 유리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400여 개는 너무 많았고,

결국 타협안이 1953년 인구센서스에 등재된 38개 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족과 구별되는 인구집단을 자신들 경내의 인민으로 파악함으로써 장차 제기될 수 있는 영토문제에 대비한 측면이 있다. 국경을 가로질러 혹은 국경 너머에서 민족으로 인정되거나 국가를 구성한 인구집단은 그 집단 자체의 분리주의 움직임만 아니라 그 민족이 속하거나 구성한 국가에 의해 영토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경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민족들에 대해, 국경 너머의 동포들과 상이한 민족명칭을 사용하여 식별한 경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소수민족들이 진학, 계획생육(가족계획), 직업에 있어서 우대를 받는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해 이러한 우대를 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중국의 인구분포는 소수민족이 왜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주로 중국의 변강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아 소수민족에 대한 유화정책은 인접한 국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한 국경 방어의 강화를 의미하였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의 북부와 서부에서 소련의 침공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변강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로부터의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곧 국경의 가로질러 분포하는 민족집단들의 정치적 연계였다. 중국령 중앙아시아인들, 특히 위구르, 카자흐, 키르기즈, 타지크, 몽골 등의 민족들은 국경 너머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동포들과의 연계를 증가시켰다(Husmann, 1997, 16-17). 이러한 연계의 증가는 구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연변(延邊)의 조선족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포와 대한민국의 동포들 모두와 연계를 증폭시켜왔으며, 다이족(傣族)⁸⁾과 마오족(苗族)⁹⁾의 경우(金春子, 王建民, 1994)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지구는 중원에 비하여 인구규모는 작지만 자원의 양에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지니고 있다(표 2 참조).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지구의 이러한 사정을 두고 지속적인 인구 이주를 추진하여 왔다. 증가하는 중원의 한족 인구에 대한 인구 안전판으로서 소수민족지구를 인식하는 것은 연안시기(延安時期)의 공산당교(共產黨校) 지리학 교수 출신 쑤징지(孫敬之, 1983, 82)에 의해서도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들이 왜 중국에서 소수민족문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중국 정부가 왜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모순 역시 존재한다. 규정상 자치구역들은 중원의 지방들에 비해 지방적인 사안에 있어서 더 많은 통제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세금의 경우 중앙으로 보내는 대신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중원 지역들에 비해 높고,¹⁰⁾ 생산계획 역시 지방의 자체적인 계획에 입각하며, 지방의 당·정 및 금융,公安 분야 지도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족 비례에 의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모두 중앙의 계획과 법률 및 통제에 종속되어 있다. 1954년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제70조는 중앙의 법률과 비준의 한계 내에서만 재정,公安 및 일반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구역자치는 항상 일반적인 행정구역체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그보다 상위에 있는 당·정 기구의 관할을 받아야 하고, 결국에는 중공 중앙이라는 곳으로 귀속된다.

3. 자치구역의 설치를 통한 민족의 지역화

1) 민족자치구역의 설립 추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소수민족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제국적 질서 내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위치 지우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국적 질서가 아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질서 내에 모든 민족들이 위치 지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국가

내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계속된다. 여기서 나온 민족문제의 해결책이 민족구역자치(民族區域自治)제도이며, 이것은 중국 민족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큰 특징이며 우수성으로 선전되고 있다.

민족의 자치(自治: autonomy)에 관한 권리는 1931년 제정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 대강(中華蘇維埃共和國憲法大綱)]에서 처음으로 그 개요가 드러났다. 이 헌법의 제14조는 소수민족들에 대해 자결(self-determination)의 권리뿐만 아니라 분리 독립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었다.¹¹⁾ 그러나 이후 진행된 헌법의 수정 과정에서 자결권은 제한된 구역자치로 대체되었다. 자결(自決: self-determination) 또는 자주(自主: self-rule)로부터 자치(自治: autonomy)로 용어가 변하는 것은 용어상으로는 사소한 차이였지만, 소수민족에게는 정책상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였다. 더불어 이전에 통일전선적 차원에서 사용되던 약소 민족(弱小民族), 피압박 민족(被壓迫民族)이라는 용어는 신중국이 성립되자 곧 바로 민족(民族)이 되었다가 다시 소수민족(少數民族)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와 더불어 분리주의 활동은 범죄로 간주되었고, 중국 정부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1947년 내몽고 자치구의 성립을 필두로 한 자치구역의 설립은 1950년~1958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진행되다가 1959년과 1960년에 중단되며, 1961년~1966년 사이에 다시 재개되었다가, 1967년~1978년 사이에 다시 중단된다. 1979년 이후 민족자치구역

은 다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자치구역의 신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족자치구역의 설치 문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이러한 시기별 추이는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민족자치구역의 설치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민족자치구역의 설치가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민족의 지역화: 자치지방 지명편제의 예

각각의 민족에 대한 혹은 여러 민족의 연합에 의한 민족자치구역의 설립은 표면상으로는 해당 영역 내에서 민족적인 자치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족을 지역화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민족자치구역의 설립이 민족이라는 사회적인 범주를 공간적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그 구역이 공화국의 한 지방이고 민족은 공화국의 하나의 인민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의도와 효과를 지녔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민족자치지방들의 명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李康源, 2000, 112-119).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민족자치지방¹²⁾은 자치구(自治區)가 5개, 자치주(自治州)가 30개, 자치현(自治縣)이 117개, 자치기(自治旗)가 3개로서 도합 155개의 단위가 있다. 1952년 8월에 반포된 [민족구역자치 실시요강(民族區域自治實施要綱)]과 이를 모체로 1984년 5월 통과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 모두 "민족자치지방의 명칭은 특수한 상황을

표 3. 중국 민족자치지방의 자원보유 현황

항목	절대치	전국 대비 점유비율
민족자치지방의 총인구	154,627,100 명	13.5%
토지면적	6,170,300 km ²	73.5%
경지면적	174,300 km ²	18.2% (경작가능 토지면적 31.6%)
삼림면적	478,667 km ²	37.4%
임목축적량	5,243,000,000 m ³	56.3%
담수면적	40,782 km ²	24.5%
수력자원저장량	354,768,200 kW	52.5%
초원면적	30,000,000 km ²	75.0%
이용가능한 초원면적	2,131,333 km ²	68.0%

자료: 中國統計出版社, 1993년 1월, [中國民族統計], 「중국민족통계」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통계 범주는 없음.

표 4. 민족자치구역 건립의 지역별/시기별 추이

연도	北 京	天 津	河 北	山 西	內 蒙 古 ※	遼 寧	吉 林	黑 龍 江	上 海	江 蘇	浙 江	安 徽	福 建	江 西	山 東	河 南	湖 北	湖 南	廣 東	廣 西	海 南	四 川	貴 州	雲 南	西 藏	陝 西	甘 肅	青 海	寧 夏	新 疆	
47																															
48																															
49																															
50																						!				iii					
51					!														i					i				!			
52						!													iii			!									
53																			i	i		!	!	!	!	!	!	!	!	!	!
54																		i					i	!	!	!	!	!	!	!	!
55			ii															i	i					i							*
56							i	i										ii				!	!	!	!	!	!	!	!	!	!
57																							i	!	!						
58					!	ii	i												*					!	!						*
59																															
60																															
61																															
62																			i												
63																			i				i	ii							
64																								i							
65																								ii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ii						
80																								ii							
81																								i							
82																								!							
83																								ii							
84											i							ii					iii	i							
85						ii																			iiii						
86																															
87			ii															ii	ii	iiii			iii								ii
88																									i						
89							i																								
90			ii			iii																		i							
91																															
92																															
93																															

주: ※ 자치구, ! 자치주, i 자치현, l 자치기 (1990년 이후 자치구역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성립시기는 國家民族事務委員會 내부자료들에서 종합함.
 자료: 李康源(2000, 57)

제외하고는 지역명칭, 민족명칭, 행정지위의 순서로 짓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족자치지방의 건립, 구역 경계선의 획분, 명칭을 짓는 것은 상급 국가 기관과 지방의 국가기관 및 유관 민족의 대표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고,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민족자치지방의 지명은, 예를 들어, “(延邊)+ (朝鮮)族+自治(州)”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155개 단위의 민족자치지방 명칭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자치구 지명 중, ‘족(族)’자가 없는 것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시짱 자치구(西藏自治區: 티벳), 내몽고 자치구(內蒙古自治區) 등 3개이다. 자치주 및 자치현, 자치기 중 ‘족’자가 빠져 있는 지명들은 11개로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내몽고 자치구에서만 나타났다. 맨 앞에 지역명칭이 없는 것은 2개의 자치기로서 내몽고 자치구에 있는 곳들이다.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와 내몽고 자치구 내의 자치주, 자치현, 자치기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시짱 자치구에는 좡족(티벳) 이외의 다른 민족의 자치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치구 명칭에 ‘족’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주나 자치현, 자치기에도 ‘족’자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러나 내몽고와 신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자치지역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신장의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민족자치지방 중 창지 후이족 자치주(昌吉回族自治州)와 연치 후이족 자치현(焉耆回族自治县)에는 ‘족’자가 들어 있다. 내몽고 자치구에서는 3개의 자치지방 중 어룬춘 자치기(鄂倫春自治旗)를 제외한 어원커족 자치기(鄂溫克族自治旗)와 모린다와 다우얼족 자치기(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에 ‘족’자가 들어 있다. 반면에, 신장에 있는 몽고족의 자치주나 자치현에는 ‘족’자가 없지만, 칭하이성(青海省)에 있는 몽고족 자치현에는 ‘족’자가 있고, 간수성(甘肅省)의 몽고족 자치현에도 ‘족’자가 있다. 이것은 키르키즈족(柯爾克孜族), 카자흐족(哈薩克族)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장에 있는 1개의 자치현 이외의 민족 자치구역을 갖고 있지 못한 타지크족(塔吉克族)과 시버족(錫伯族)은 ‘족’자가 들어간 자치구역을 어디에도 갖고 있지 못하다. 전국의 민족자치지방 명칭

중에서 앞 부분에 지방명이 없는 것은 ‘어룬춘 자치기’와 ‘어원커족 자치기’ 뿐이다.

이것이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特殊情況)’이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¹³⁾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명편제가 주는 효과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족’자가 사라짐으로써 민족명이 지역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로써도 내몽고, 신장, 시짱에서만 나타났으며, 혈통과 언어에 있어 한족과 동일한 후이족의 자치구인 닝샤(寧夏)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미 동화되어 언어적으로나 여타의 방면에 있어서 한족과 흡사한 좡족(壯族)의 자치구인 남방의 좡시(廣西)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지방 명칭의 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라는 지명의 결정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경내의 다른 소수민족의 자치주와 자치현이 모두 성립되고 난 후 성립되었다. 성립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자치구역의 명칭 문제였다(當代中國的民族工作編輯部, 1993, 224). 당시 이 지역의 명칭을 두고 세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동투르키스탄(東土耳其斯坦)’으

표 5. 신장과 내몽고 민족자치지방 지명

자치지방 지명	성립시기	지역
巴音郭楞 蒙古 自治州	1954. 6. 23.	신장 위구르 자치구 (1955. 10. 1.)
博爾塔拉 蒙古 自治州	1954. 7. 13.	
克孜勒蘇 柯爾克孜 自治州	1954. 7. 14.	
昌吉 回族 自治州	1954. 7. 15.	
伊犁 哈薩克 自治州	1954. 11. 27.	
焉耆 回族 自治縣	1954. 3. 15.	
察布查爾 錫伯 自治縣	1954. 3. 25.	
木壘 哈薩克 自治縣	1954. 7. 17.	
和布克賽爾 蒙古 自治縣	1954. 9. 10.	
塔什庫爾干 塔吉克 自治縣	1954. 9. 17.	
巴里坤 哈薩克 自治縣	1954. 9. 30.	내몽고 자치구 (1947. 5. 1.)
鄂倫春 自治旗	1951. 10. 1. (1951. 11. 30.)	
鄂溫克族 自治旗	1958. 8. 1.	
莫力達瓦 達斡爾族 自治旗	1958. 8. 15.	

- 지명은 「中國國家標準地名地圖集」을 기준으로 함.

로 하자는 의견, '위구르스탄(維吾爾斯坦)'으로 하자는 의견, '신장자치구(新疆自治區)'로 하자는 의견이 그것이었다. 동투르키스탄으로 하자는 의견은 자치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위구르족 세력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 지명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위구르스탄이라는 안은 일반대중(漢族)이 이해하기 어렵고, 민족분열주의자들이 동투르키스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 그 명칭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민족이 혼거하는 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 의해 제외되었다. 신장자치구라는 안에 대해 중국 정부는 비록 사용된 기간이 짧지만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 후보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위구르족들은 신장(新疆)이라는 단어가 '중원에 의해 새로이 개척된 강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최종적인 타협안으로 신장자치구 안에 '위구르'를 넣어 '신장위구르자치구'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족'자는 넣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자치구 성립 이전에 이 지역에서 성립된 자치주, 자치현의 전례를 들어 '족'자를 넣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의 '신장 위구르'는 민족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명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족'자의 탈락 현상이 공교롭게도 중국 민족문제의 최대 난제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시짱 자치구 그리고 내몽고 자치구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내지의 소수민족보다 오히려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들에 대해 더욱 지역화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족의 공간화(territorialization of ethnicity)' 또는 '민족의 지역화(regionalization of ethnicity)'는 이들 민족을 중국의 인민으로, 지역을 중국의 국토로 인식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4. 자치구역이 구성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그에 대한 견제

1) 자치구역이 구성하는 새로운 정체성

자치구역의 설정을 통한 민족의 공간화는 민족

과 민족지구를 인민과 국토로 통합시키는 국가통합(national integration)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유대와 정체성의 해체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크릿츨로프는 구소련령 중앙아시아에서 이러한 예를 확인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신생독립국 '○○○스탄'들(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등)은 구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에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은 소비에트 정권의 틀 내에서 활동하였던 외부자들에 의해 유럽적인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Critchlow, 1991, 4).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집단적 영역적 정체성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도입된 서구적 민족개념으로 재구획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글래드니는 "중앙아시아에서는 혁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민족적 차이(ethnic difference)를 전략적이고 임시적으로 인정한 것보다는 민족집단들에 대한 영역획정(territorial demarcation)이 민족적 경계들(ethnic boundaries)을 강화시켰다"(Gladney, 1991, 93)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구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중앙아시아에서 범이슬람적 정체성이 부활할 것이라는 외부의 예상과 달리, 이들 민족집단들에게서 범투르크주의나 범이슬람주의가 사실상 회피되고, 대신에 '구획된 경계에 따라' 민족주의(nationalism: 국민주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해준다. 원래 범투르크적인 정체성 이외의 별다른 정체성이 없었던 구소련령 중앙아시아의 민족들은, 구소련의 해체 이후 서로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구소련 치하에서 획정된 국경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Husmann, 1997, 28). 결국, 포괄적 의미에서의 자치구역이라는 영역적 구획이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을 만들어내고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소련령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찰은 중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는 장제스(蔣介石, 1946)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천부적 경계(natural boundary)'를 주장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통합하고자 노력해왔다.¹⁴⁾ 중국의 영역은 자연적으로 그

렇게 결정된 것이며, 그 안의 사람들은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중국의 인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많은 민족과 그들의 거주지역을 무력의 사용과 동조자 규합을 통하여 민족자치구역의 테두리로 통합시켜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계산된 구역획정과 영역조정(일종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해 이루어졌다.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구역의 설정은 기존에 존재하던 공간을 가로지르던 정체성의 범주들을 공간적으로 한계 지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종교가 있다. 종교는 민족식별의 기준 중의 하나인 '공통의 심리소질'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종교는 타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장전불교(藏傳佛教: 라마교)를 토대로 한 몽고와 티베트의 유대관계는 해체되었고, 좡족(藏族)과 몽고족(蒙古族)이라는 각각의 분리된 범주 속에서 자신들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했다.

범이슬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개조작업이 수행되었다. 무슬림 집단들을 무슬림으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민족으로서 파악하고 무슬림적 유대를 해체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10개의 무슬림 민족 집단들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1920년대 구소련령 중앙 아시아에서 실행된 민족식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위구르, 카자흐, 타지크, 우즈벡, 키르기즈, 타타르 등이 구소련에서와 같이 중국에서도 공식적인 민족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중국에서나 구소련에서나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복수화시켰다. 무슬림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구분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범투르크 혹은 범이슬람이라는 의식을 희석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무슬림과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뿐만 아니라, 동북 중국의 소수민족인 어룬춘족(鄂倫春族: Oroqen)과 같은 소규모 민족집단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어룬춘족이라는 민족의 공식적인 식별에 앞서 자치구역의 획정이 진행되었다. 어룬춘(鄂倫春), 어원커(鄂溫克), 다우얼(達斡爾) 등은 이전과 달리 구역을 할당받음으로서 내적·외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각각의 민족이 되었다. 나아가 이들 세 집단은 청조(淸朝)라는 외부에 의해

부여되고 자신들에 의해서도 수용된 '솔론(索倫: Solon)'¹⁵⁾이라는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 집단 사이의 통혼도 활발하였지만, 명확히 분리된 구역으로 자치구역이 성립되자 이들에게서 이러한 공동의식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의 구분이 공동의 의식을 분열 혹은 희석시키면서 독자적인 단위집단으로서의 의식을 형성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위구르족에서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위구르(Uygur: Uighur)'라는 말은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정착지가 있으며, 이슬람을 믿고, 투르크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소련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위구르라는 민족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 이들은 범투르크, 범이슬람이라는 정체성 이외에 어떤 독특한 집단적 유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위구르라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스스로를 자신들 각각이 거주하거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방 명칭에 따라, '카슈가르릭(Kashgarlic: 카슈가르 출신)', '투르판릭(Turpan-lic: 투르판 출신)', '악수릭(Aksu-lic: 악수 출신)' 및 '타란치(Taranchi)', '투르키(Turki)', '사르트(Sart)'라고 자신들을 불렀을 뿐이다. 원래 위구르라는 말은 7세기 경 불교를 믿는 타림분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0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 이 지역이 이슬람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 말은 폐기되었고, 대신 위구르는 '이교도'라는 의미와 결합되었다. 1930년대에 소련에서 옛날의 위구르라는 말을 찾아내어 다시 썼고, 이것이 중국에 도입되었다. 1950년대 중국의 민족식별 과정에서 위구르라는 용어는 중국의 서북 오아시스에 거주하는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성립되었지만, 위구르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 임의적으로 부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족의 창조(invention of nationality or invention of ethnicity)'와 제도화 그리고 수량화가 국가에 의해 부여된 민족적이고 공간적인 윤곽을 따라 민족주의의 부흥을 조장하는 일종의 '객체화의 과정(a process of objectification)'(Gladney, 1991, 21)을 촉발시켰다. 결국, 국가적 힘에 의해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만들어진 민족'이 오늘날 '독립된 위구르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룬춘족과 같은 소규모의 민족 집단에서도 관찰되었다. 어룬춘인들은 원래 '모쿤(mokun)'이나 '허라(hela) 혹은 하라(hala)'라는 단위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씨족과 지역에 따른 '○○이얼'과 '○○허라' 및 '○○첸'이라는 동성씨족 조직이 상위 정체성이었던 것이다(李康源, 2000, 85-87참조). 1920년대의 시로코고로프(Shirokogoroff, 1924; 1929; 1935)의 조사에서도 '○○첸'과 같은 이름으로 자신들을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첸'들은 종종 '어루쨌'이나 '쑤론힌'이라는 보다 상위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부수적이고 중첩된 것이었으며, 창조에 의해 부여된 성격이 강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어룬춘'이라는 정체성으로 집중하게 된 것은 중국에서 민족식별이 이루어진 1950년대 초반에서의 일이다. 이로부터 어룬춘, 어원커, 다우얼 등이 정체성에 있어서 명확한 분할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어룬춘과 같은 소수의 구성원을 지닌 민족에 대해서도 '민족 창조'의 국가적 측면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구소련(그리고 러시아)에서 어룬춘과 어원커인들이 '에벤키'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식별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결국, 민족자치구역의 설정은 공간분할을 통하여 결속력을 지닌 상부구조에 대한 타파를 의도하였지만, 그렇게 분할된 공간이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의 단위로 기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던 것이다.

2) 영역 조정과 민족적 응집력에 대한 견제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이라는 것도 지속적인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치구역의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영역조정의 최후의 결과는 한족의 유입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역조정을 일종의 게리맨더링과 같은 의도적인 공간적 조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영역의 조정의 예로 칭하이(青海)과 신장(新疆), 내몽고(內蒙古), 쓰촨(四川), 윈난(雲南)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한족의 유입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자체의 이동과 영역의 조정이 실행되었다. 딜(Deal, 1971, 143-145)은 중국에

서 영역조정은 자치의 모든 수준에서 명목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민족집단들의 힘을 희석화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코너(Connor, 1984, 234)는 내몽고 자치구와 시짱 자치구(티벳)에서 영역 조정 정책이 어떤 식으로 국가의 목적을 위해 실행되었는가를 분석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의한 내몽고 자치구의 수립(1947년)은 매우 재빠른 조치로서, 국민당, 소련, 몽고인민공화국 그리고 내몽고의 공산주의자들 및 비공산주의 운동들과의 긴박한 경쟁 속에서 내몽고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신중국 성립 초기에 몽고족은 원래 약속된 자신들의 영역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다.¹⁶⁾ 원래의 몽고족의 영역은 기(旗)가 수립된 전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후 내몽고 자치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원래의 몽고 기(旗)가 존재하던 전역을 인정하는 대신에, 한족이 월등히 우세한 수이위엔성과 차하얼 및 닝샤의 1/3을 내몽고 자치구 영역으로 편입시켰다(1955년). 그에 따라 내몽고 자치구의 한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역의 조정은 문화대혁명의 과정에서 1969년에 내몽고 자치구 영역이 1/3로 줄어드는 사태로 이어졌다. 1979년에 1969년의 영역을 회복하자, 내몽고 자치구에는 중국 내에 거주하는 몽고족의 70%가 거주하게 된 반면에, 자치구 전체 인구 중에서 몽고족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가 되어버렸다(李康源, 2002).

내몽고 자치구와는 대조적으로 시짱자치구(티벳)는 1965년 성립 당시 거의 대부분이 짱족(藏族)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 영역조정은 짱족의 대다수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시짱의 전통적 영역 중 일부만이 시짱 자치구로 인정되고, 많은 지역이 인근의 칭하이성(青海省), 간수성(甘肅省), 쓰촨성(四川省), 윈난성(雲南省) 등으로 편입되었다. 그에 따라 많은 짱족들이 인근 성들의 인민으로 편입되었다. 코너(Connor, 1984, 324)는 이에 대해 자치구역이라는 체계가 민족을 응집시키기보다는 파편화시키는 데 이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장에서는 1953년 시작된 민족자치지방의 설립으로 위구르족의 집거지인 남서부의 허티엔(和田), 카스(喀什), 아커쑤(阿克蘇) 지구와 동북부의 하미

(哈密), 투르판(吐魯番) 지구가 위구르족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 자치구역에 의해 중간이 단절되었고, 국경지역에도 다른 소수민족의 자치구역을 설치하여 위구르족의 외부와의 연계를 통제하였다. 이는 신장에서 가장 큰 수를 차지하는 위구르족이 외부의 동포들이나 인근의 이슬람제국들과 연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는 공간전략이었다.

이러한 영역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들 지역에 나타나는 공통의 결과는 해당 지역에서의 한족의 증가였다. 신중국 성립 이후 민족자치구역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역사상 유래 없는 외지인구(한족)의 유입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목하는 학자들은 많지 않다. 이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이론적 경향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로 신중국 성립 이후 중원으로부터 민족자치구역으로의 인구이동의 총량을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통계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중원에서 민족자치구역으로의 한족 이주의 시기와 그것의 상대적 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곧 “돼지수의 변화에 근거한 추정” 방법이다(자세한 통계수치는 李康源(2000, 53-55 및 375-387을 참조).

사회주의 시기에는 인구에 대해서보다도 생산물과 생산수단에 대한 통계적 파악에 비교적 철저하였다는 점과 한족에게 돼지고기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음식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민족지구에서 돼지수의 증가를 한족 인구증가의 시기와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남방의 좡족 자치구를 제외한 지역, 곧 대표적인 변강이자 민족자치지구인 내몽고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닝샤 후이족 자치구, 시짱자치구(티벳)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인 신장과 닝샤의 경우에는 한족이 늘어나지 않는 한 돼지의 수가 늘어날 이유가 없으며, 내몽고의 몽고족 역시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시짱(티벳)의 경우에도 돼지고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돼지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곧 한족이 늘어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한족-소수민족의 지역적 분포는 주로 1958년의 대약진운동과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 기초가 이루어졌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민족자치지방의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194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민족자치지방의 한족의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족보다 출생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수민족의 인구증가에 비해 한족의 인구증가가 높다는 것은 인구증가의 상당 부분이 한족의 이주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약진운동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한 인구이동을 낳았다. 이러한 이동은 특히 민족지구로 알려진 변강에서 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들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주자들은 초기에 비지(飛地: enclave)적 형태의 거주지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소수민족과는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약진운동이 실패함에 따라 많은 인구가 변강지역에서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그러나 당초 대규모의 인구이동이었던기 때문에 많은 잔류자들을 발생시켰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한족 인구 증가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문화대혁명기에도 변강지역으로의 인구의 이주가 활발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무정부적 상황을 틈탄 자류인원(自流入人員: 自由流入人員)의 유입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류인원들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주한 인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약진운동 시기에 형성된 비지적인 거주지에서 벗어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향촌에까지 유입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이주는 해당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 많은 불만을 야기하였다.¹⁷⁾

민족식별 이후 자치구역에 대한 이러한 영역조정은 소수민족에 대한 분할과 지배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데올로기는 고전적인 테제, 즉 사회주의의 이익이 민족들의 자결권리에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민족들의 자결권에 우선하는 사회주의의 이익은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다수는 한족이었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의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

역 설정이 지닌 성격을 공간적 전략과 정체성 구성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에 주목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중국 민족정책의 핵심적인 측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조차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개별 민족들과 지역들의 사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지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민족식별과 자치구역의 설정은, 전통적인 정체성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민족을 지역화(공간화)시킴으로써, 소수민족들을 중국 내의 확고한 인민으로 전환시키고 민족지구를 국토로 통합시키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민족식별에 있어서 기존의 자의적 설정, 민족자치구역의 설정 및 영역 조정 그리고 인구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민족적 정체성과 결속력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중국민족(中國民族)' 혹은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민족의 식별과 자치구역의 설정은, 중국민족 혹은 중화민족의 새로운 창출 과정 이외에도, 그렇게 식별되고 구획된 영역 내에서 새로운 개별 민족적-영역적 정체성을 창출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민족이라는 사회적 범주와 민족자치구역이라는 공간적인 범주는 그 각각이 고정적인 문화적 속성에 기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규정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장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례에 관한 이러한 결론이 갖는 이론적인 함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연구가 그간 공간과 경계에 대한 정치적 이해에 있어서 주류를 형성해 온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관점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공간구획과 경계설정 등에 관한 대부분의 지리학적 연구들은 권력이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어떤 합리성의 근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그러한 지리학적 연구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공간이 지니는 힘'은 권력 그 자체 혹은 일정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목록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괄적이기는 하나, 권력에 의해 구획된 공간이 다시 의식과 정체성을 구성하고 경계짓

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실이 그러하듯, 공간은 물질적이기도 하지만 의식적인 것이기도 하며, 이러한 공간의 물질성과 의식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권력과 공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논문이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어진 공간구획과 경계설정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인 민족집단 구성원들의 전략적 의도와 그러한 의도의 근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 논문의 한계이자 차후에 진행될 연구의 과제라 하겠다.

註

- 1) '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영어 표현은 'nationality'이며, '소수민족'은 'minority nationality'이고, '민족자치지방' 혹은 '민족자치지구'는 'minority nationality autonomous region'이다. 이 글에서는 영어표현을 병기할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공식적인 영어 용례를 따른다. 'nationalism'과 'ethnicity'에 대한 해묵은 논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특히 한국에서는 용어 번역의 문제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용례를 따르는 것이 지니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nationalism'이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ethnicity'의 문제와 궤를 같이하고, 중국의 아주 작은 인구규모의 민족들에 대해 'nationalism'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이론적인 언급에 있어서는 'ethnicity' 및 그 변형태를 사용한다.
- 2) 중국에서 '인(人)'의 개념은 '군자(君子)'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민(民)'의 개념은 '소인(小人)'인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은 성안에 사는 귀족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민'은 성밖에 사는 농민을 말하며, '민'의 점진적인 성장으로 '인민(人民)'이 하나의 낱말로 쓰이게 되고, 이로부터 국가의 구성원이 확정되었다고 한다(趙紀彬, 1974). '족(族)'은 '인'도 아니고 '민'도 아니며, '인민'도 아닌, 성밖에 매우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살고 있다고 추정되는 '우리와는 다른 인간 집단'을 지칭하는 데 쓰인 말이었다.
- 3) 이 원칙과 관련하여 폐이샤오통(費孝通)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나는 민족이 하나의 허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백히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같이 하나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동질감(認同感)과 일체감(一體感)은 이러한 사회적 실체가 의식상에 반영된 것,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족의식(民族意識)이다. 민족의식은 자기가 소속된 민족의 어떤 명칭(자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민족이 그들을 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이한 명칭(타칭)에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이 접촉한 소수민족 군중들은 모두 자기가 어

- 면 민족에 속하는지 알고 있었다. 중국에 모두 몇 개의 민족이 있느냐는 문제에 회답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각 지로부터 소수민족들이 스스로 신고한 민족명칭을 입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다.”(費孝通, 1999, 4)
- 4) 후이족(回族)은 ‘회회(回回)’ 혹은 ‘통간’이라고도 불린다. 통간이라는 용어는 ‘개종자’를 뜻하는 터어키어에서 유래하였다. 후이족은 이슬람교로 개종한 한족의 자손이거나, 14-15세기에 중국의 북서부의 간수성과 산시성의 일부 지역 및 닝샤에 정착한 터어키족 이슬람 교도와 한족 이슬람 교도가 결혼하여 낳은 자손이다. 한족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은 주로 터어키족이 한족 어원을 입양한 결과이다.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외에 외모, 언어는 모두 한족과 같다. 이들의 대다수는 중국의 내지에 살고 있다. 1949년 이전에 중국에서 ‘후이(回)’는 무슬림 혹은 무슬림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연안(延安)시기와 1953년 중국에서 첫 인구 센서스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하나의 ‘민족’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9개의 다른 무슬림 민족(위그르(維吾爾), 카자흐(哈薩克), 키르키즈(柯爾克孜), 동상(東鄉), 사라(撒拉), 타지크(塔吉克), 우즈베크(烏孜別克), 바오안(保安), 타타르(塔塔爾) 등)로부터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 5) 만족은 1953년 인구조사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규모였고, 1990년에는 1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민족자치구역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치현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河北省에 4개, 吉林省에 1개, 遼寧省에 6개 등). 이들보다 인구가 적은 조선족이 자치주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이들 자치현들은 모두 1985년 이후에 수립되었다. 이것은 신중국 성립 직전 동북지방에 만주국(滿洲國)이라는 만주족을 주체로 한 괴뢰국이 존재한 적이 있어서, 만주족의 자치구역을 성립할 경우 그것을 연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꺼린 것이며, 나아가 1950년대 초 까오강(高崗)과 같은 동북에 연고를 둔 인사들의 친소련적인 경향과도 관계가 있다. 자치구급의 자치구역을 성립시킬 경우 그 범역 전체가 소련의 수중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주국의 존재로 인하여 만주족은 만족으로 불리게 되었고, 개혁개방 이전까지 만족으로 식별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
- 6) 우리는 여기서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성립 시기에 가졌던 지정학적 특수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자치구역의 성립 시기는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치른 한국전쟁시기였다. 따라서 대부분이 소련 혹은 친소련적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민족자치구역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더불어 1958년 성립된 창바이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이 왜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민족취거구(民族聚居區)’ 개념에 입각하여 합쳐지지 않고 별도의 자치현으로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 7) 예로, 일찍이 중국 공산당에 참여했고, 내몽고 자치구 성립 이후 내몽고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으며, 중앙 정부의 부총리와 중앙군사위 위원까지 지낸, 우란푸(烏蘭夫: 몽고족, 雲澤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음)는 민족문제에 관한 한 중국 공산당과는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47년 3월 17일 [雲澤對憲法中關於少數民族問題的意見](中共中央統戰部, 1991, 1324)이라는 당 중앙으로 보내는 문건에서, “중국 경내의 각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할 것, 각 민족의 자유연합적인 평등하고 민주적인 연방을 건립할 것, 소수민족이 그 자치구역에서 무장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국방군(인민해방군을 의미) 중 단독적으로 편성된 소수민족군대를 둘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 중국공산당이 민족문제에 대해 지녔던 기본노선, 즉 연방제에 대한 약속에 기반한 것이다. 이 서신을 보내고 19년 후 우란푸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분리주의자로 낙인찍혀 비판당한다.
- 8) 원난성, 태국, 월남, 미얀마에 거주하는 민족으로서, 중국에서는 현재 ‘다이’라고 불리지만, 이전에는 ‘산(Shan: 掸)’이라고 불렸으며, 지금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산’이라고 불린다. 중국 정부가 이전의 민족명칭을 폐기하고 새로운 글자와 발음으로 민족명을 붙인 것은 국경 너머의 동족들과 하나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 9) 마오족은 중국의 위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지만, 이들은 원래 월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에 분포하는 ‘멍(蒙)’이라는 민족과 같은 민족이다. 중국의 마오족은 자칭하여 ‘멍(蒙)’ 혹은 ‘무(木)’이라고 부르며, 이는 국경 너머의 동족들에게는 변화 없이 적용된다. 이 민족 명칭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 수정된 것이다.
-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족자치지방의 대다수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앙의 지원을 들어 중국의 민족정책의 우수성을 선전하지만, 자치지방의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자치구역 내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광업과 임업, 대규모 농업 등을 국영부문의 관리로부터 민족자치지방으로 이관한다면 재정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11) “중국 소비에트 정부는 중국 내의 각 약소 민족들에게 자결권, 즉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각 민족이 독립된 국가를 구성할 권리를 인정한다. 모든 몽고인들, 후이인들 티벳인들, 마오인들, 약오인들, 고려인들 및 중국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다른 민족들은 완전한 자결의 권리를 갖는다. 즉 중국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 이탈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자치구역을 건립할 수 있다.”(1931년 11월 7일 발표, 中共中央統戰部, 1991, 166)
- 12) ‘민족향(民族鄉)’은 공식적으로 민족자치지방에 속하지 않는다.
- 13) 李康源(2000, 112-119)은 이에 대해 중국 변강지역의 지정학적이고 정치지리적인 특수성에 입각한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 14) 장제스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참조할 수 있다. “지리적 환경에서 말하면 중국의 산맥과 강은 자연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가령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조감한다면, 북방은 아시아의 지붕 파미르고원으로부터 천산산맥, 알타이산맥이 등으로 뻗어서 동삼성에 이르고, 중앙은 파미르고원으로부터 곤륜산맥이 뻗어서

- 동남평원에 이르며, 남방은 파미르고원으로부터 히말라야산맥이 뻗어서 남중반도에 이른다. 이 삼대산맥들 사이에 흑룡강, 황하, 회하, 장강, 주강의 제유역이 있다. 중화민족이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바로 이 하천들을 따라 서였다. 이 지역들 내의 어떤 한 띠의 영토도 중국으로부터 찢겨져 나가거나 분리될 수 없고, 또 그것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독립된 단위를 형성할 수 없다.” (蔣介石(1946, 4-5)). 이러한 주장은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서도 계승된다.
- 15) 그 어의는 연구자들에 의해 ‘기둥(柱)’, ‘선봉(先鋒)’, ‘사수(射手)’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나라 초기 정부가 동북지방의 어원커, 어룬춘, 다우얼을 통칭하여 ‘솔론’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 이 명칭은 그 지칭 범위에 있어서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어원커, 어룬춘, 다우얼인들 스스로에 의해 자신들 세 민족을 통일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청 정부가 공통의 생활양식에 근거하여 이 명칭으로 묶었을 이들 집단은 다시 이 명칭을 통하여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해나갔다.
- 16) 1935년 12월 20일에 발표된 마오쩌둥 명의의 [중화 소비에트 중앙정부의 대 내몽고 인민선언(中華蘇維埃中央政府對內蒙古人民宣言)]의 제1항에는 “원래의 6명, 24부, 49기 및 차하얼투위터(察哈爾土默特) 2부 및 닝샤(寧夏)의 3특기 전역을 모두 내몽고 인민에게 귀속시켜, 몽고 인민의 영토로 한다. 러허성(熱河省), 수이위엔성(綏遠省), 차하얼성(察哈爾省) 등을 모두 폐지하고, 모두 몽고인 민족의 토지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中共中央統戰部, 1991, 322).
- 17) 이러한 사례에 관해서는 李康源(2000, 206-260)을 참조할 수 있다.

文獻

- 姜命相, 1988,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용성출판사, 서울.
- 李康源, 2000, 중국 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어룬춘족 사회의 다민족화와 정체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 李康源, 2002, “文化大革命과 少數民族地區의 政治地圖: 내몽고자치구와 어룬춘자치구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 제1호(3월 31일 출간예정).
- Heberer, T., 1997, “중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의 종족부활, 종족정체성, 그리고 종족갈등,” 비교문화연구, 제3호, 131-175.
- 國家民族事務委員會經濟司, 國家統計局國民經濟綜合統計司編, 1998, 中國民族統計年鑑: 1998, 民族出版社, 北京.
- 金光億, 1998, “文化研究與中國: 國家與人類學之關係,” 馬戎, 周星 主編, 田野工作與文化自覺(上), 群言出版社, 北京.
- 金春子, 王建民, 1994, 中國跨界民族, 民族出版社, 北京.
- 當代中國的民族工作編輯部, 1993, 當代中國的民族工作(上, 下), 當代中國出版社, 北京.
- 馬戎, 周星 主編, 1999, 中華民族凝聚力形成與發展,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 費孝通, 1995, “關於我國的民族識別問題,” 黃光學 主編, 中國的民族識別, 民族出版社, 北京.
- 費孝通, 1999, “我的民族研究經歷和思考,” 馬戎, 周星 主編, 中華民族凝聚力形成與發展,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 孫敬之, 1983, 中國經濟地理概論, 商務印書館, 北京.
- 蔣介石, 1941, 中國的運命(宋志英 譯, 1946, 中國的運命, 現代世界, 서울).
- 趙紀彬, 1974, 論語新探, 新華出版社, 北京.
- 中國地圖出版社, 1998, 國家標準地名地圖集,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編輯部, 1993, 中國民族統計, 中國統計出版社, 北京.
- 中共中央統戰部, 1991, 民族問題文獻匯編: 1921. 7 - 1949. 9, 中共中央黨校出版社, 北京.
- 黃光學 主編, 1995, 中國的民族識別, 民族出版社, 北京.
- Connor, W., 1984, *The National Question in Marxist-Leninist Theory And Strate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Critchlow, J., 1991, *Nationalism in Uzbekistan: A Soviet Republic Road to Sovereignty*, Westview Press, Boulder.
- Deal, D., 1971, *National Minority Policy in Southwest China, 1911-1965*,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Dreyer, J. T., 1976, *China's Forty Millions: Minority Nationalities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Eberhard, W., 1982, *China's Minorities: Yesterday and Today*,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 Gladney, D. C., 1991, *Muslim Chinese: Ethnic Nationalis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 Gladney, D. C., 1995, "Economy and Ethnicity: The Revitalization of a Muslim minority in Southwestern China," in Walder, A.(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Gladney, D. C., 1996, *Ethnic Identity in China: The Making of a Muslim Minority Nationality*,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New York.
- Heberer, T., 1989, *China and its National Minorities: Autonomy or Assimilation?*, M. E. Sharpe, Inc., New York.
- Husmann, L. E., 1997, *Falling Lands, Rising Nations: Environmental Nationalism in China and Central Asi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Kim, Kwang-ok, 1983, "Policies and Studies on Minorities in China: An Overview," *Sino-Soviet Studies*(Hanyang Univ.), vol. 7, no. 1, 35-55.
- Mackerras, C., 1994, *China's Minorities: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Mackerras, C., 1995, *China's Minority Cultures: Identities and Integration since 1912*, Longman, London.
- Segal, G., 1994, "China's Changing Shape," *Foreign Affairs*, vol. 73, no. 3, 43-59.
- Shirokogoroff, S. M., 1924,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 A Study of the Manchu Clan Organization*, The Commercial Press, Shanghai (高丙中 譯, 1997, 滿族的社會組織-滿族氏族組織研究, 商務印書館, 北京)
- Shirokogoroff, S. M., 1929, *Social Organization of the Northern Tungus with Introductory Chapters Concerning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History of these Groups*, The Commercial Press, Shanghai(吳有剛, 趙復興, 孟克 譯, 1984, 北方通古斯的社會組織, 內蒙古人民出版社, 呼和浩特).
- Shirokogoroff, S. M., 1935, *Psychomental Complex of the Tungus*,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1982, reproduced by AMS press in New York).
- Stalin, J., 1942, *Marxism and National Question: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원 고 접 수 일 2002. 2. 15
최종원고접수일 2002. 3. 10